

국내 반도체 수출 주력제품 급부상

64MD램이 국내반도체 수출의 주력제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첫 수출에 나선 64MD램은 올들어 월평균 1억달러 이상이 판매돼 16MD램에 이은 새로운 수출 주력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의 경우 수출이 시작된 10월 부터 12월까지 64MD램의 총 수출액은 1억7천만달러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1월 6천3백만달러, 2월 7천9백만달러, 3월 7천9백만달러, 4월 9천5백만달러, 5월 1억1천2백만달러, 6월 1억5천만달러, 7월 1억7천만달러로 매달 급증해 7월말 현재 총 7억4천9백만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토 했다.

이에 따라 7월말 현재 44억1백만 달러에 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64M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섰고 특히 5월 이후에는 월평균 20%를 넘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4MD램의 수출이 이처럼 활기를 띠는 것은 삼성전자·LG반도체 등 국내업체들의 수출이 갈수록 향상되는 데다 한국과 일본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경쟁업

체가 없어 시장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4MD램의 개당 수출가격은 38~40달러선으로 개당 7~8달러선인 16MD램의 5배에 달하고 있다.

화합물 전자소자 개발 '한창'

화합물 광소자에 이어 화합물 전자소자 개발이 한창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LG·현대 등 반도체 관련 전자3사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반도체에 이은 효자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고주파대역 신호처리의 핵심부품인 MMIC(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등 화합물 전자소자의 개발 및 조 기생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륨비소(GaAs)·인듐인(InP)을 소재로 하는 HEMT와 HBT, 그리고 이를 집적한 MMIC 등 화합물 전자소자는 실리콘 소재의 전자 소자에 비해 5배 정도 빠른 전자이동도로 3GHz 이상의 고속·고주파대역 처리가 가능하고 저잡음 특성이 우수해 최근 고속·고주파대역 처리를 요구하는 고속 뼈빠로부터 위성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쓰임새가 확

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최근 반도체를 잇는 수출유망산업으로 떠오르자 이 분야의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주파대역 신호 처리에 필수적인 화합물 전자소자 기술이 밀반침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내 전자업체들은 최근 이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LG그룹은 LG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93년부터 화합물 전자소자 개발에 본격 착수, 현재 9백MHz대역의 GSM용 전력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1.7GHz대역의 개인휴대통신(PCS)용 전력 FET, 그리고 77GHz대역의 차량용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단위소자를 LG정밀과 공동 개발 중이다.

LG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룹 계열 전자부품 회사 내에 화합물 전자소자용 생산라인을 설치, 이들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력 FET를 응용한 전력모듈과 HEMT를 이용한 저잡음증폭기·주파수변환기 등의 MMIC 개발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리모컨 PC '각광'

먼 거리에서도 손쉽게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원격제어용 리모

컨이 PC 및 주변기기의 기본 입력장치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보컴퓨터·대우통신 등 주요 컴퓨터 업체들은 최근 출시한 PC신모델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리모컨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주변장치 생산업체인 가산전자·두인전자·디지털로직·프로컴코리아 등도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재생용보드와 통합멀티영상보드·오버레이보드·TV컨버터 등에 고성능 리모컨을 기본 사양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채택한 리모컨은 적외선(Ir) 방식의 다기능 복합제품으로 10m 안팎의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파워온TV기능, CD플레이 기능, 인터넷 브라우저 작동 기능, 전화 기능, 마우스 기능, 스크롤 기능, 음량조절 및 채널전환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부품 대북 임가공 '물꼬'

국내 중소 전자부품업체들의 대북한 임가공협력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은 극동음향·한국단자공업·성문전자·삼화전자공업·한륙전자 등 조합 산하

의 10개 전자부품업체 대표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립인용 부총사장이 지난 17일 북경 카이빈스키호텔에서 임가공 협력사업 계약(계약번호 : NSKE-970817)을 체결했다.

이번 전자조합의 대북한 임가공 협력사업은 국내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TV임가공 생산에 이어 두번째이고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계약조건은 국내 부품업체들이 인천항을 통해 선박으로 원자재를 보내면 북한측에서 이를 수령해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2동에 위치한 조립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 우리측에 넘겨주는 방식이며, 대금결제에는 제품 수령 후 북한 측이 지정하는 은행에 입금하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10개 부품업체들은 내달 중 조립을 위한 원자재 1차 물량을 선적하며 늦어도 10월 안에 사장단과 기술관계자들이 진남포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10개 부품업체들은 이번 계약에 앞서 지난 6월 북한측의 요청에 의해 샘플 제작용 원자재를 발송해 1차 완제품 샘플을 받은 결과 조립 상태가 매우 우수해 이번에 임가공계약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절약형’ 가전 개발 붐

소비자의 가전제품 사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들은 최근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카세트 등 가전제품에 시간절약형 기능을 개발,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맞벌이부부를 비롯 일상생활이 바쁜 소비자들 사로잡기 위한 상품전략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시판에 나선 세탁기 신제품 「수중강타」. 이 제품은 급속단시간코스를 채용해 종전에 49분이었던 세탁시간을 21분으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또 고급 브랜드로 육성중인 양문여단이(사이드 바 이 사이드)형 냉장고도 동급 외산 제품에 비해 빠른 냉각속도(냉장 80분, 냉동 87분)를 외산제품과 차별화할 주요 판매 포인트로 삼고 있다.

LG전자의 판매중인 식기세척기도 시간단축을 모토로 내세운 제품이다. 기존 식기세척기는 세척과 건조에 60분이상 걸리는데 이 제품은 모두 40분 만에 처치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 신제품 「온도프리」는 해동시간을 종전 제품보다 50% 이상 단축했다. 두 제품 모두 주요 소비층인 바쁜 맞벌이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상품기획이다.

98년형 통돌이세탁기의 경우 세

탁물이 적을 때 급속 세탁코스를 거쳐 빨리 세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세트리코더 「아하 프리」는 충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짜증을 내는 소비자를 겨냥해 충전시간을 단축한 쾌속충전의 기능을 채용했다.

대우전자는 이달 중순경부터 시판할 98년형 세탁기 신제품 「올리고 때리고」에 대해 향상된 세탁력과 함께 충전 제품보다 11.5% 단축된 세탁시간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또 식기세척기 「프리타임」은 세척시간을 20분대로 단축했고 스틱·핸드 일체형 청소기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본체와 분리할 수 있다.

가전업체들은 이밖에 화면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면서 소리는 정상대로 나오도록 해 시청시간을 단축한 VCR를 내놓는 등 AV제품에 대해서도 시간절약기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TFT LCD 투자 “한국이 주도”

세계 전자산업에서 최대 이슈는 급성장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FPD)시장이며 이 분야의 투자는 한국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세계 반도체 장비 및 재료협회(SEMI)가 최근 자료에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SEMI가 회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 자료에 따르면 복합디스플레이 기술발전과 노트북PC,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항법장치, 벽걸이TV, 디지털 카메라 등 응용장치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평판디스플레이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이미 12억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오는 2000년까지 연평균 20%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EMI는 평판디스플레이 중에서 박막트랜지스터(TFT)LCD분야는 97년부터 99년까지 2년 동안 무려 24개의 새로운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향후 12개월 동안에만 20억달러의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TFT LCD분야는 오는 99년까지 2년 동안 17억8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인 한국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SEMI는 강조했다.

SEMI는 또 디스플레이리서치사의 자료를 인용, 한국업체들은 올해 총 2백16만개의 TFT LCD 패널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8년에는 이보다 100% 이상 증가한 총 4백34만여개를, 그리고 99년에도 98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6백49만개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반도체 경기 ‘상승곡선’

지난 6월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미국 반도체공업회(SIA)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판매액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반도체 판매액은 1백13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6억달러보다 7.5% 증가했다.

올들어 월별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기는 5월에 이어두번째이지만 5월 증가율이 1.6%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6월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가들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지표라고 풀이했다.

6월 반도체 판매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특히 미국시장 경기 활황이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 기간 미국시장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38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9.3% 증가한 24억5천만달러, 유럽은 6.8% 증가한 23억5천만달러였다.

일본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수요는 증가했지만 달러로 환산한 판매액은 1.4% 감소한 27억6천만 달러에 그쳤다.

유럽PC시장 ‘침체터널’ 탈출

올 상반기 유럽 PC시장은 작년 동기비 10.5%의 성장률을 기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컨택스트에 의하면 상반기 유럽 PC시장은 총 8백57만5천9백60대가 팔려 작년비 10.5% 늘어났으며 이 중 2·4분기에만 14% 성장,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럽이 이같은 호조를 보이는 것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 등 규모가 큰 PC시장에서의 수요가 활발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컨택스트는 특히 유럽의 가정용 시장이 지난 2·4분기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돼 올 하반기에는 15~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유럽 최대시장인 독일이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2·4분기 96만5천여대의 PC를 판매, 1분기 대비 7.8% 증가에 그쳤고 두번째로 큰 영국은 상반기 전체 12.1%가 늘어나며 호황을 보였다.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컴팩컴퓨터가 저가전략과 공급체계 개선 등에 힘입어 14.6%를 차지, 1위를 지켰고 IBM이 9.3%로 2위, 휴렛팩커드(HP)가 6.2%로 3위를 기록했다. 또 유럽 최대 PC업체인 독일의 지멘스 닉스도르프는 2분기 동안 작년 동기비 59.3%

늘어난 24만8천3백여대를 판매하는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 5.8%로 4위에 올랐다.

중국 컬러TV업체 대폭적인 증산

중국내 컬러TV 생산과잉이 심각한 가운데 이 나라 최대 컬러TV업체인 사주장공전자집단이 대폭적인 증산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연간 컬러TV 생산대수를 98년 8백만대, 99년에는 지난해의 2배 규모인 1천만대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천만대 생산은 컬러TV분야에서 세계 최대규모다.

이에 따라 현재 자국내 컬러TV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도산은 장공전자사의 대대적인 증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또 증산과 함께 수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백만대 가량이던 중국 컬러TV 수출은 더욱 확대돼 세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레이더 등을 생산하는 군수업체로 출발한 장공전자는 컬러TV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선전·저가공세 등으로 급성장해 95년에는 수위업체로 올라섰다.

이 회사는 지난해 컬러TV를 480만대로 생산했고 올해는 65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95년 현재 98개의 컬러TV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4천4백7만대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생산대수는 2천57만대로 54%의 설비가 유휴상태고 재고 물량도 300만대를 넘는 등 생산·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는 컬러TV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외국업체의 신규투자도 제한하는 등 생산과잉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품질 웨이퍼 증산

실리콘웨이퍼 분야 세계 최대업체인 일본의 신에쓰반도체가 고품질 웨이퍼인 「에피텍셜 웨이퍼」 증산에 나선다.

신에쓰반도체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일본·미국·유럽 3개 지역 생산거점에 총 1천억엔을 투자, 오는 2000년까지 자사의 에피텍셜 웨이퍼 총 생산규모를 현재의 5배인 월 50만장(8인치웨이퍼 환산)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에쓰반도체의 이번 증산은 D램 분야 주도권이 16M에서 64M로 전환되면서 미일 반도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에피텍셜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에쓰는 여타 업체에 앞서 3개 지역 동시 생산체제를 구축, 차세대 웨이퍼 시장을 리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에쓰는 일본의 국내 주력거점인 군마현 기후공장과 미국 밴쿠버 생산자회사의 월 생산능력을 각각 현재의 3배인 20만장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오는 1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영국 스코틀랜드공장에도 월 8만장 규모의 생산설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00년 3월까지 월 50만장 생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파이버 채널-PCI 호스트 어댑터 발표

아답텍사는 맥월드 엑스포에서 한 개의 시스템에 126개까지의 파이버 채널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초당 100MB에 가까운 속도로 디지털 비디오 파일과 같은 데이터 집적적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이버 채널-PCI 호스트 어댑터를 발표했다.

파이버 채널은 초당 1기가비트까지의 수행능력을 가지며 30미터의 케이블과 126개의 주변기기 연결을 지원한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파이버 채널은 대용량의 그래픽 및 멀티미

디어 파일을 전송하는 고성능 I/O로 각광받고 있다.

아답텍사의 파이버 채널 디자인 키트는 맥킨토시 데스크탑 컴퓨터와 통합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32비트 AHA-F940 PCI-파이버 채널 호스트 어댑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디자인 키트는 현재 샘플용으로 OEM에게 공급되고 있다.

3D 그래픽 칩세트 발표

미국 인텔이 3차원 그래픽 칩세트 「440LX」를 정식 발표한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자사의 액셀러레이티드 그래픽 스포트(AGP) 표준에 기반한 이 칩세트는 펜티엄II와 ATI 테크놀로지사의 등의 그래픽 칩을 지원, 더욱 강력한 성능의 3차원 그래픽처리를 할 수 있다.

AGP는 기본적으로 그래픽 프로세서와 주 메모리 사이에 고속 데이터 통로를 만들어 기존 3차원기술처럼 비싼 프레임 버퍼 비디오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데스크톱PC 가격으로도 고성능 3차원 그래픽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 AGP기술은 △ AGP 표준에 맞는 그래픽 가속 칩 △ 440LX와 같은 AGP 기반 칩세트 △ 소프트웨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분과 관련해 인텔은 윈도우95 시스템에서 AGP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VXD소프트웨어나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MS 넷쇼에 ATM 기술 접목

ATM 기반 고성능 네트워킹 제품 시장의 세계적 강자인 포어시스템스(FORE Systems, Inc)사는 타이거(Tiger)라는 코드명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기업 혹은 전용 비디오 LAN용 고성능 솔루션으로 개발한 넷쇼(NetShow) 폴스크린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ATM 지원을 발표했다.

포어러너 LE, PCA-200EPC ATM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카드(NIC), 포어러너 ATM 스위치를 포함한 포어 시스템스의 ATM 제품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넷쇼 폴스크린 비디오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포어 시스템스의 멀티포인트-투-포인트(Multipoint-to-point) ATM 전송 기술과 넷쇼 폴스크린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의 결합은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킹 용량

대부분을 보호하면서도 비디오 어플리케이션 전용의 고대역폭 Connectivity를 제공해 준다.

넷쇼 폴스크린 비디오 서비스 멀티미디어 자료를 기업 인트라넷 상에서 스트리밍 하는 강력한 솔루션이다.

넷쇼를 사용하면 전문 프로덕션 수준의 완전 동화상 폴스크린 MPEG 비디오 자료를 손쉽게 웹(Web)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다.

넷쇼 폴스크린 비디오 서비스의 고화질 비디오 기능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ATM은 속도 민감형 데이터, 음성, 비디오 등의 전송을 위한 혁신적인 네트워킹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ATM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의 무결점 전송 기능과 함께 조직 능력도 대폭 확대되는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네트워킹 기술과는 달리 ATM은 확실한 Qos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속도를 지원하며, LAN과 WAN 양쪽 모두에서 사용된다.

벨기에 반도체산업 특구 지정

벨기에가 반도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주를 반도체 특구로 지정, 해외 반도체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외국투자국(FFIO)의 필립 반덴부슈 국장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플랑드르주에는 세계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와 알카텔 세미컨덕터가 있어 이미 반도체산업 육성기반이 확립돼 있다』고 소개하고, 『플랑드르주는 유럽최대 독립연구기관(IMEC)과 FFIO를 활용해 각종 기술지원 체제와 세계 우대장치 등을 마련, 해외 반도체업체들을 적극 유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IC카드 개발

모토로라와 소니가 차세대 집적회로(IC)카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접촉형'과 '비접촉형' 기능을 함께 갖는 '복합형' IC카드를 올해 안에 개발, 내년 봄부터 전세계 카드회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합형' IC카드가 실용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회사는 남보다 한발 앞서 복합형 카드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자체 규격을 세계표준화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

고 있다.

두 회사는 개발은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생산은 모토로라가 담당하기로 했다.

IC카드에는 공중전화카드와 같이 카드판독기에 삽입하는 '접촉형'과 버스 정기승차권처럼 판독기에 접촉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도 사용할 수 있는 '비접촉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복합형'은 이 두 종류를 통합, 본인증명(ID)카드, 전자화폐, 각종 신용카드, 공중전화카드, 교통수단의 정기탑승권 등 기능을 카드 한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IC카드라 불리고 있다.

대만, 64MD램 생산 본격화

대만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64MD램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에서 최초로 64MD램 생산을 시작했던 프로모스 테크놀로지스가 올해말까지 64MD램 생산능력을 8인치웨이퍼 환산 월 2만장으로 확대하며 TI에 이서도 이달 안에 64MD램 시험생산을 개시한다.

또 TSMC 외에도 3개업체가 올해 안에 64MD램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64MD램 시험생산을

시작한 프로모스 테크놀로지스는 도입 초기인 4~5월 수율이 크게 떨어졌으나 7월 들어 50% 이상으로 향상됐다. 현재 이 회사는 0.35미크론 미세가공기술을 채용한 64MD램 칩 생산체제를 확립해 놓고 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대만 에이스의 합작업체인 TIE이서도 이달 안에 64MD램 시험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최대 수주생산업체인 TSMC도 후지쯔 공급용으로 64MD램 생산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맥스 그룹 산하 파워칩 세미컨덕터와 MPEG 멀티미디어 칩으로 알려진 원본드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 포모사 플라스틱 엔터프라이즈의 IC부문인 난야테크놀로지 등 3사가 각각 일본의 미쓰비시전기·도시바·오키전기과 기술 제휴, 4·4분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16MD램 또 증산

D램 시황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이후 증산을 거듭해 온 미국 D램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는 9~11월 또 한차례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은 현재 월 3천개 정도인 16MD램 생산규모를 오는 9월부터 약 10% 늘려 9~11월

3개월 동안 총 1억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9~11월 3개월 생산규모는 현재 16MD램 감산에 나선 한국의 삼성전자·현대전자·LG전자 3개사가 계획하고 있는 7~9월 3개월 동안의 생산량 합계 8,400만개는 물론 일본의 NEC·도시바·히타치제작소가 같은 기간 계획하고 있는 생산량 합계 9,100만개보다도 많아진다.

16MD램 가격은 지난 1월 한국 3개사가 감산을 추진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한국업체들의 감산 발표 직후 대폭 증산을 추진한 마이크론의 영향으로 4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마이크론의 이번 증산도 1월과 마찬가지로 한국 D램업체들의 16MD램 감산과 일본업체들의 동격 발표 직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인하를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한국·일본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비해 칩 크기가 작으면서 생산원가도 싼 16MD램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9월 이후 생산하는 제품에 0.3미크론 미세가공기술을 채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0.25미크론 기술을 도입해 칩 크기가 현재의 43mm²보다 더 작은 30mm² 이하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무선데이터 서비스 개선

미국 인텔사가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체, 전화서비스 업체들과 연합을 결성, 무선 데이터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미 「C넷」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5일 미 IBM·컴팩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일 도시바,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을 비롯한 북미 GSM연합과 「모빌 데이터 이니셔티브(MDI)」라는 연합을 결성, 이동중인 PC 사용자들의 무선 데이터서비스 접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텔은 대부분의 무선 데이터서비스가 전화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서 이용되는 것과 달리 MDI는 이동중인 PC 사용자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텔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 정도가 로밍서비스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MDI는 이들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북미 지역이 이동 컴퓨팅, 디지털 무선서비스, 인터넷 가입이 폭증하는 등 무선 데이터서비스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숙돼 있다고 판단, 우선 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후 유럽으로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한편, 북미 GSM연합은 유럽형 이동통신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연합으로 에어리얼 커뮤니케이션스·벨사우스·마이크로셀 텔레커뮤니케이션스·옵니포인트 커뮤니케이션스·퍼시픽벨·파워텔·웨스턴 와이어리스 등 7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64MD램·플래시 메모리 증산

일본 후지쯔가 싱크로너스형 64MD램과 플래시메모리를 대폭 증산한다.

후지쯔는 미국 D램 생산거점인 그래픽공장과 일본의 플래시메모리 생산 거점으로 미국 AMD와의 합작사인 FASL에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새 생산라인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후지쯔는 이를 통해 자사의 64MD램 생산능력을 현재의 5배인 월 300만개로, 플래시메모리 생산 능력도 4M 기준으로 현재의 1.5배인 월 1,200만개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후지쯔는 그동안 메모리사업을 D램과 플래시메모리로 특화시켜 진행해왔다. 특히 D램 사업에서는 MPU와의 데이터 교환속도를 높이는 싱크로너스형에 주력, 현재 모든 64MD램을 싱크로너스형으로 생산하고 있다.

후지쯔는 현재 이와테공장을 중심으로 64MD램을 월 50만개 규모 생산하고 있으나 그래픽공장의

0.3미크론급 64MD램 생산라인이 풀가동되는 내년 3월에는 월 250만~300만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후지쯔는 또 플래시메모리 증산을 위해 FASL에 0.35미크론 미세가공설비를 도입, 단일전원·저전압 작동을 특징으로 하는 2~16M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후지쯔는 이를 위한 장비도입은 끝마친 상태며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300MHz 펜티엄 II 2개 탑재 차세대 WS 발표

미국 마이크로널 일렉트로닉스가 그동안 주력제품으로 개발해온 차세대 워크스테이션을 이번주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되는 「파어다임 XSU」 워크스테이션은 마이크로널이 지난 95년 인수한 제오스 인터네셔널의 애플리케이션 처리에 뛰어난 IC 기술과 주기판 설계기술을 이용, 칩세트와 주기판의 뛰어난 결합으로 인텔 등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앞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마이크로널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두개의 300MHz 펜티엄 II를 기반으로 다이아몬드사의 파이어 GL 1000프로 그래픽스, 10/1000bps 이더넷, Zip드라이브 등을 갖추고 가격은 6,100

99달러부터 시작된다.

특히 워크스테이션에 탑재된 두개의 독자적인 「사무라이」칩세트는 64비트의 고속 66MHz PCI 버스와 기가비트 이더넷, 「IEEE 1394」 가전제품 접속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세대 디지털TV 개발

미국 통신장비업체 루슨트 테크놀로지가 디지털TV 개발에 나섰다.

루슨트는 최근 인텔·컴팩 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MS) 등 컴퓨터업체들과 공동으로 미국의 차세대 디지털TV를 개발하기로 했다.

루슨트는 이들 3사와 함께 PC를 기반으로 TV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TV를 개발하는 한편 특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인코더·디코더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4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TV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루슨트 합류로 미국 디지털TV 개발을 놓고 가전업체에 밀리고 있는 컴퓨터업체는 세를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업체는 지난해 말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디지털TV 신호 압축·전송 방식에서 표준을 마련하면서 화면주사 방식은 소비자 선택

에 맡기기로 해 PC를 주로 하는 TV개발을 주장하는 컴퓨터업계와 반대의견인 가전업계간 치열한 경쟁을 전개해왔다.

윈도95 '제로관리 키트' 상용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 전산환경에서 PC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윈도95용 「제로 관리 키트(ZAK)」를 상용화

한다고 보도했다.

시스템 총 유지비용(TCO) 최소화 핵심요소인 윈도95용 툴키트는 중앙 시스템관리자가 PC클라이언트 구성과 운용을 맡아 개인이 일일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윈도95용 ZAK 상용화에 따라 시스템관리자는 윈도95 기반의 시스템들과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한 넷PC와 조화로운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툴키트는 윈도NT 서버 4.0에서만 운용되고 넷웨어나 오픈VMS 등 다른 서버 플랫폼에서는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ZAK는 <http://www.microsoft.com/windows/zak/zakw95reqs.ht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MS는 이와 함께 윈도98 및 윈도NT 5.0용 관리소프트웨어도 출시할 방침이다.

